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12/11

## 2013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국영화 누적 관객수는 작년(2012년)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2013년)는 11월에 이미 1억 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은 영화가 <도둑들>(1,298만 명),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 명) <늑대소년>(665만 명) 3편뿐이었지만, 올해는 <7번 방의 선물>(1,280만 명), <설국열차>(933만 명), <관상>(849만 명), <베를린>(717만 명) 등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은 영화가 8편이나 되어 더욱 많은 스타들의 다채로운 연기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배우는 누구일까요?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 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영화배우를, 이후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스포츠선수, 코미디언/개그맨 등 ‘2013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1월 1~18일(18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
5. 표본오차: ±2.4%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 주요 결과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송강호 - 2위는 ‘총무로 대세’ 하정우
- <베를린> <관상> 출연 배우 두각
- 최근 몇 년간 상위권에서 여배우 존재감 낮아져
- 20대 여성은 송강호보다 하정우!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 위, 송강호 - 2 위는 '충무로 대세' 하정우**

**송강호**가 한국갤럽의 '2013년을 빛낸 영화배우'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 송강호가 22.5%의 지지를 얻어 2008년에 이어 5년 만에 두 번째로 1위에 올랐다.

송강호는 8월 <설국열차>의 '남궁민수'役に 이어 9월 <관상>의 '내경'역으로 각각 933만 명, 849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오는 11월 18일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역으로 또 한 번 관객을 만날 예정이어서 2013년 한 해 2,000만 관객 동원 배우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위는 18.9%의 지지를 받은 **하정우**로, 지난 해 5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 하정우는 올해 1월 <베를린>과 7월 <더 테러 라이브>로 많은 관객을 만났는데, 특히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해 큰 액션 없이도 긴장감 넘치는 원맨쇼를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작(多作) 배우로도 유명한 그는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직접 연출한 코미디 영화 <롤러코스터>를 선보이며 감독으로 데뷔하는 등 '충무로 대세'로 불리고 있다.

3위는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로 1위를 차지했던 **이병헌**이었다. 이병헌은 올해 한국영화가 아닌 두 편의 할리우드 영화 <지.아이.조2>와 <레드: 더 레전드>에서 주연으로 활약해 18.0%의 지지를 얻었다. 2005년 이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에 한국영화가 아닌 외국영화 주연으로 이처럼 높은 순위에 오른 경우는 처음이다.

4위는 <7번방의 선물>에서 여섯 살 지능을 기진 아빠 '용구'역으로 열연한 **류승룡**으로, 10.1%의 지지를 얻었다. <7번방의 선물>은 올해 유일한 천만 관객(1,280만 명) 영화인데, 류승룡은 지난해 <광해, 왕이 된 남자>에도 출연한 바 있어 2년 연속 천만 관객을 만난 배우가 됐다. 2004년 34세의 늦은 나이로 배우 데뷔해 그간 명품 조연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올해 대중상영화제에서는 송강호와 함께 남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명품 주연으로 거듭났다.

5위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배우 **설경구**로, <타워> <감시자들> <스파이> <소원> 등 올해 무려 네 편의 영화로 관객을 만나며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7.4%의 지지로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5위권에 들었다.

6위는 올해 <신세계>와 <관상>에서 기존 연기파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호연을 펼친 **이정재**(선호도 6.7%), 7위는 <관상>에서 특유의 개성 있는 연기와 매력을 발산한 **김혜수**(선호도 6.3%), 8위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올해 대중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수상한 **김수현**(선호도 5.7%)이었다.

▶ 2013년을 빛낸 영화배우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올해 대표작
1위	송강호	22.5	〈실국열차〉 〈관상〉
2위	하정우	18.9	〈베를린〉 〈더 테러 라이브〉
3위	이병헌	18.0	〈지.아이.조2〉 〈레드: 더 레전드〉
4위	류승룡	10.1	〈7번방의 선물〉
5위	설경구	7.4	〈타워〉 〈감시자들〉 〈스파이〉 〈소원〉
6위	이정재	6.7	〈신세계〉 〈관상〉
7위	김혜수	6.3	〈관상〉
8위	김수현	5.7	〈은밀하게 위대하게〉
9위	장동건	3.7	-
10위	전지현	2.8	〈베를린〉

질문)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베를린〉 〈관상〉 출연 배우 두각

‘2013년을 빛낸 영화배우’ 10위권에는 올해 하반기 인기 영화 〈관상〉에 출연한 송강호, 이정재, 김혜수 등 세 명이 포함됐고, 상반기 인기 영화 〈베를린〉에서는 하정우와 **전지현**(선호도 2.8%, 10위) 두 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5위 내 들었던 **장동건**은 올해 출연 영화가 없음에도 9위(선호도 3.7%)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그 외 김윤석(2.4%), 하지원(2.2%), 손예진(1.9%), 정우성(1.8%), 이종석(1.7%), 손현주(1.6%), 장혁(1.6%), 한석규(1.5%), 안성기(1.4%), 송중기(1.3%)가 20위권에 들었다.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 최근 7년간 추이 (2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전도연(49.7)	송강호(13.1)	이병헌(20.1)	원 빈(30.7)
2위	송강호(16.5)	손예진(11.3)	장동건(17.9)	장동건(14.4)
3위	배용준 (6.4)	김혜수 (7.4)	설경구(17.5)	강동원(11.6)
4위	안성기 (6.4)	전도연 (7.3)	하지원(14.3)	이병헌 (6.4)
5위	설경구 (5.0)	장동건 (7.3)	정지훈 (8.3)	송강호 (5.6)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원 빈(11.3)	이병헌(37.6)	송강호(22.5)	
2위	박해일 (9.5)	송중기(15.0)	하정우(18.9)	
3위	장동건 (8.8)	김혜수 (7.6)	이병헌(18.0)	
4위	김하늘 (8.2)	장동건 (7.4)	류승룡(10.1)	
5위	공 유 (5.8)	하정우 (6.4)	설경구 (7.4)	

### 최근 몇 년간 상위권에서 여배우 존재감 낮아져

최근 몇 년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상위권에서는 여배우 존재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에서 각축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배우 순위 최고 기록은 2009년 하지원(4위), 2010년 김혜수(7위), 2011년 김하늘(4위), 2012년 김혜수(3위), 2013년 김혜수(7위) 등이다.

### 20대 여성은 송강호보다 하정우!

송강호와 이병헌은 10대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고른 사랑을 받았으며 이들에 비해 늦게 이름을 알린 하정우와 류승룡은 장년층보다는 40대 이하 젊은 층이 좋아했고 설경구와 이정재는 30대에서, 김수현은 10대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김혜수는 다양한 연령대, 특히 30대와 4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반면 전지현은 여성보다는 남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아 같은 여배우라도 서로 다른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3년을 빛낸 영화배우 - 성/연령별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표본수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송강호	하정우	이병헌	류승룡	설경구	이정재	김혜수	김수현	장동건	전지현
전체	1,702	22.5	18.9	18.0	10.1	7.4	6.7	6.3	5.7	3.7	2.8
성별											
남성	849	24	19	18	10	7	7	6	5	4	4
여성	853	21	19	18	11	8	6	7	7	4	2
연령											
13~19세	176	22	23	17	13	6	5	4	<u>12</u>	1	3
20대	250	19	<u>28</u>	<u>23</u>	13	8	7	6	8	3	2
30대	307	<u>28</u>	23	20	10	<u>11</u>	<u>11</u>	7	5	3	4
40대	335	27	20	15	14	8	9	8	7	4	4
50대	303	22	14	21	9	7	6	6	3	6	3
60세이상	331	17	10	13	3	4	2	7	3	3	1
남성											
13~19세	93	23	24	16	10	8	4	4	<u>10</u>	2	5
20대	130	23	24	21	13	7	8	5	7	3	2
30대	157	31	25	22	9	<u>11</u>	<u>9</u>	5	4	3	5
40대	170	29	20	16	15	8	8	7	7	4	4
50대	154	22	13	22	7	6	8	5	2	7	5
60세이상	145	16	10	13	3	4	4	7	2	2	3
여성											
13~19세	83	21	21	19	<u>16</u>	5	5	5	<u>15</u>	1	1
20대	120	15	<u>32</u>	<u>25</u>	13	9	6	7	9	4	2
30대	150	24	22	18	11	<u>12</u>	<u>12</u>	<u>9</u>	6	3	4
40대	165	25	21	14	14	9	10	<u>9</u>	7	5	3
50대	149	22	15	21	11	8	3	6	4	5	1
60세이상	186	17	9	13	4	4	1	6	3	5	0

질문)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